

# 이 인연의 땅에 그리는 꿈의 지형도

## 이 계절의 시집서평...신춘 시단의 몇몇 성과들

신범순

문학평론가

얼마전에 필자는 어느 잡지에 시 월평을 쓰면서 나의 '글쓰기'가 사로잡혀 있는 여러 가지 인연의 끈을 느끼게 되었다. 어떤 시들의 배후에는 끈끈한 술잔의 출렁임과 공모하는 탁자의 넓은 지평이 아른거린다. 그리고 어떤 시구절 속에는 내 인생과 맞닿아있지 않은 낯 설음이 노려보고 있다. 나를 누르는 그 모든 것들의 억압 속에서 내 글쓰기의 관능적인 몸부림이 뒤틀리면서 숨을 죽이고, 신경증적인 경련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이었던가. 글을 쓴다는 것은 그리하여 이상적인 펜의 자유를 꿈꾸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러한 여러가지 인연의 제약이 없다면 그러한 자유의 꿈을 그럴 지형도 없게 된다. 글쓰기-우리 인연의 얽힘, 출판사와 서적상, 비평가와 시인, 친구와 적 그리고 연인의 뒤얽힘...

이 인연의 땅에 떨어지지 않는 시구는 없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날아오르지 않는 시구도 없는 것이다.

### 김춘수의 「서서 잠자는 숲」

시인들은 자신이 얽혀있는 그러한 작은 인연들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이 인생의 바다에서 달라붙는 진흙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시들은 그 반대편의 하늘을 쳐다보지 않는가? 그러나 바로 그 진흙과도 같은 작은 이승의 인연들을 다시금 소중하게 쳐다보고, 펄럭거리면서 끝없이 펼쳐지는 자신의 일상적 삶의 산문적 지평-그 작은 책상의 우주로 끌어모으는 작업을 진행시키는 시인도 있다. 김춘수의 「서서 잠자는 숲」(민음사)은 그렇게 시와 산문의 미묘한 만남의 장면을 연출해낸다.

그의 「唐麵」 「白毛의 鬚」같은 시들은 김현승 시인과 점심을 같이 했던 이야기와 중학교 때 여행을 갔던 이야기를 추억한다. 그 이야기들은 수필처럼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상적 사건들을 투명하게 비춘다. 등교시간에 책가방을 든 채 백천 행 기차를 탔던 학창 시절의 기억은 얼마나 투명하게 남아있는가. 틀에 박힌 자신과 그 동료들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작은 반란. 그 반란에서 만나는 이국적인 풍경들(자신의 일상적인 세계에서 빠져나가서 마주치는 것들!)에 대한 설레임. 김춘수의 「백모의 맥」은 그러한 설레임 속에서 수필적 산문의 팽팽한 긴장감을 얻으며 시적인 환상

으로 날아오른다. “꿈 같기도 하고 돼지 같기도 한 짐승이 나무들의 긴 사과밭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그는 일상에 대한 반란의 공간 속에서 신화 속에 나오는 동물인 맥을 본다.

「당면」은 김현승과의 추억이 지금의 산문적인 일상을 뒤집거나 마구 조각내서 뒤섞여버린다. 그 추억은 지금 롯데월드 민속관에서의 식사장면을 초현실주의적인 화폭으로 변형시키는 힘이 된다. 그 추억 속에 있는 점심식사의 ‘편육 한쪽’이 하늘에 떠있고, 그 밑의 롯데월드 민속관은 “고래고래 고함지르는 선지파”라는 끔찍한 환상으로 부른다.

김춘수는 이제 자신의 추억을 하나의 신화로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아니 그렇지만은 않다. 그는 일상의 미세한 틈바구니에서 바로 그러한 시선들을 발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魂」에서 그는 낙동강 가물치의 “열리지 않는 아가미” 속에서 “더듬이 모양의 魂”을 본다. 그것은 매우 투명한 사실이어서 그는 그것이 비유가 아님을 그 앞의 시구를 통해 강조한다. 「水瓜」는 수박에 얽힌 일화를 통해서 여러 사물들의 차이와 유사성, 그리고 인간들의 차이와 유사성에 대한 담담한 인식을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얼굴」과도 같이 꼼꼼하게 한 대상을 그려내는 그의 회화적 솜씨와 대비되면서 별로 돋보이지 않는다. 그의 시들은 이제 그의 말처럼 그의 무의미의 시학에 전환기를 가져오는 듯 새로운 실험에 돌입하고 있다. 노년의 대가급 시인이 그러한 실험을 어떻게 정력적으로 펼쳐나갈지 독자들은 매우 궁금해할 것이다.

### 고진하의 「프란체스코의 새들」

목사이며 시인인 고진하가 「프란체스코의 새들」(문학과지성사)을 펴냈다. 그의 시들은 「소금기둥」 「날마다 聖戰」 「프란체스코의 새들」 「목제 십자가 앞에서」 등처럼 자신의 신앙과 관계되는 제물들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의 시들은 흔히 생각하듯이 그러한 종교적 신앙시와는 많은 차이를 갖고 있다. 그는 신앙의 고백을 시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 속에 있는 고통받는 인간을 소재로 해서 시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고통받는 인간을 그의 신도들이 보지 않기를!

이경호는 해설에서 그의 시를 “見性의 시”라고 했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황량하며 부정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이다. 적절한 표현

이다. 그의 「눈동자」를 읽으면 그의 시선이 인생의 어려운 행로 속에서 정신적으로 단련 받은 자의 그것임을 눈치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거대한 욕망의 동굴을 들여다 보는 시선이기도 하다. 「동굴 탐사」는 바로 그러한 내부적 시선의 “내시경”을 만들어낸다. 그 시선에 의해 한 목사의 구도과정에서 뚫고 지나가야 하는 내면풍경, 그 욕망의 유혹적인 풍경이 드러난다.

동굴의 캄캄한 내부, 잘록잘록 마다가 있는 동물의 창자처럼 살아 꿈틀거리다 마치 내시경을 하듯 플래시로 (중략)

긴 내장의 구석구석을, 비춘다, 뚝뚝 흘러 내리는

투명한 물방울들, 번득이는 불빛에 놀란듯

그러나 이 시에서 그는 사탄의 이러한 유혹적인 풍경을 놀랍게도 “내 두손으로 보드랍게 / 쓰다듬어보고 아, 활아보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의 신앙은 경전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들을 답사하고 있는 것이다.

「연화암」 「연등연등연등을 후후, 불어끄고」 등의 시들을 통해서 불교적인 어휘들과 이미지들을 등장시키는 것 또한 예사롭게 생각되지 않는다. 그에게 다가오는 종교의 단단한 껍질들은 사물들을 꿰뚫어보고자 하는 시선 앞에서 깨어진다. 그는 종교의 세속적인 제도적 장치들이 장벽을 쌓고 서로 구분하며, 자신과의 차이점에 대한 엄청난 증오를 쏟아내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옹변하지 않는다. 다만 조용한 자신의 사색과 상상력에서 쏟아져나오는 자연스러운 마음가짐들을 솔직하게 내비춤으로써 그러한 옹변을 대신한다. 그가 연화암의 돌부처에 품어안기는 것은 한 차원 높은 신앙의 한 양상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비신앙적인 일반독자들에게는 구도자의 이러한 종교적 긴장감이 배어있는 시들보다는 「굴뚝의 정신」 같이 소박한 인간적 차원에 내려와서 생활로부터 시작되는 신앙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훨씬 다가온다.

저 나지막한 함석집, 저녁밥을 짓는지 포르스름한 연기를

곧게 피워올리며 하늘과 內通하는 굴뚝을 보고 내심 반가웠다

거미줄과 그늘음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창틀에

올망졸망 매달린 함석집 아이들이 부르는 피리소리, 그 單音의 구슬픈 피리소리도 곧장 하늘로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여기서 무심한 아이들이 비참한 생활에 찌들린 채 불어대는 피리소리를 듣고 하나의 깨달음을 얻는다. 그것은 자신처럼 구도자의 길을 전문적으로 걷지 않는 자들의 생활 속에 더 깊이 있고 더 높은 무엇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다. 그는 이것을 “우뚝한 굴뚝의 정신”이라고 말한다. 그의 시들은 이렇게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에서 자신과 다른 색다른 정신들 속에서 신앙의 낮은 자락을 깔아나간다. 그 ‘신앙’의 길은 다른 형태로 우리들 자신에게도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속에 있는 그 이름붙일 수 없는 신앙을 그가 끄집어낼 수 있으면 그것 또한 기쁜 일이 되지 않았는가?

### 장석남의 「별의 감옥」

장석남의 시를 읽으면서 나는 그가 왜 정지용이나 김소월 문학상이 아니라 김수영 문학상을 타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그의 시적 경향으로 보아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어디 상이라는 것이 그러한 시적 경향과 꼭 연관되어 주어지는 것인가? 다 속세의 인연을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가슴을 파고들며 쩌 올려대는 그의 시편들. 맑고 투명하며 작은 서정적 열림의 순간들을 그의 시들은 거부할 수 없이 부드러운 가만가만한 속삭임으로 띄워보낸다. “나는 바닷가가 되어 있고/소나무 숲은 육신 가득 수련거린다”(「風笛 3」)와 같이 내밀한 서정적 분위기들을 어떻게 김수영의 도전적인 요설들과 대면시킬 수 있겠는가? 이번엔 나온 「별의 감옥」(도서출판 사공구)은 이미 나온 시편들과 그림을 함께 실은 것이어서 그의 서정적 분위기를 한층 돋군다. 그러나 나는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의 시적 분위기와 하나씩 대응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김소월 시의 어떤 것들을 상상적으로 그려보면서 그의 시들을 읽는다. 「초저녁 「밥별」이라는 별」은 소월의 애잔한 한의 서정과 가난에 대한 정겨운 사랑의 감싸기가 좀 더 가까워서 바라보이는 세밀화로서,

그리고 자신의 좀 더 선명한 얼굴을 갖고 있는 시적 진술의 주인공의 부각으로서 돋보인다.

저녁때 밥을 먹습니다  
저녁때 된장에 마른 멸치를 찍어 먹습니다  
자꾸 목이 막혀 찬물도 몇 모금씩 마십니다  
좀 더 어둡자 남쪽 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그 별 오랫동안 쳐다보며 씹는 저녁밥  
속으로 나는 그 별을  
'밥별'이라고 이름붙입니다  
어느 틈엔가 그 별이 무척 신 얼굴로  
진저리치며 빛납니다

김소월의 「산유화」에는 '작은 새'가 나온다. 바로 그러한 '작은 새'의 가슴으로 그러나 두견새의 피울음을 꽃으로 구워낼 줄 아는 그 가슴으로 장석남은 「풍적 2」 「우리는 때로 꽃밭의 철망을 보고」 「불꺼진 하얀 네 손바닥」 등을 쓰고 있는 것이라. 나는 「저녁의 우울 1」 같은 아름다운 시를 보면서 그의 시가 왜 오늘날의 다른 시들과 달리 우리에게 편안함을 가져다주며 가슴을 저리는 아름다움을 선사하는가 궁금해졌다. "여의도 분석집에서 저녁밥을 먹고/강변을 걸었다/강은 내게 오래된 저녁과 속이 터진/어둠을 보여주며 세상을 내려갔다/청동오리도 몇마리 산문처럼 물위에 떴다". 장석남의 이 '강'은 민중적인 정서의 강도, 또 박재삼류의 전통적인 정서의 강도 아니다. 그의 강은 철저하게 소시민적인 개인의 삶 구석구석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그 속에서 차오르는 강인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바로 김수영과 연결되는 측면이 아닐까? 그런데 그가 견고 있는 '素月路'는 이미 김수영이 끌어안고 있던 비판적 과제들을 포기한 채 현실의 한 귀퉁이에 떠밀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거기서 잠자며 나를 올려다보는 "눈이 깊은 바람"(「풍적 9」)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 박인숙의 「지느러미가 아름다운 사람」

박인숙의 「지느러미가 아름다운 사람」(세계사)을 장석남의 시들과 함께 읽는 것은 즐겁다. 그러한 즐거움은 그저 비슷한 시들을 읽을 때의 기분나쁨과 대비된다. 서로 다른 다양한 경향들이 선명한 차이점들을 드러낼 때 우리는 무엇인가 통쾌한 느낌을 갖게 되지 않는가.

이미 그 시집의 해설을 쓴 필자로서는 이 자리에서 별로 할 말이 따로 있을 것 같지 않다. 다시 읽다보니 「슬픔의 난로」 「겨울 유리창」 같은 시가 눈에 뜨인다. 아직 젊은 그녀의 시들은 장석남의 절제되어 있는 말들과는 달리 숨가쁜 호흡을 어떻게 추려야 할지 모르는 말들로 가득차 있다. 그녀의 주제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 「책을 읽어드리죠」는 사실 그녀의 시적 재능을 드러내지 않는다. 대신 그녀의 시를 들여다보는 안내관 역할을 한다. "시든 낙엽되어 부서지는 소리 들리면/그렇게 다 자란 결말과 읽혀진 책들은/잊혀지겠지만". 그녀의 시에서 하늘 속으로 날아오르는 "날개라는 문자"(「단 하나의 부리를 가진 새여」) "머리 숲이 다 자란 책들"(「더욱 푸르러

지면 안되나요」) 그리고 누렇게 바래서 뒤덮이고 무덤처럼 쌓여있는 낡은 책들의 지층인 "지상의 갈색책" 들을 읽게 되면 그녀의 '책'이 은밀하게 변주되는 이미지이며 주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조상과 대지의 유물들을 그러한 주제가 어떻게 파헤칠 것인가 하는 데 우리는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

#### 안정옥의 「붉은 구두를 신고 어디로 갈까요」

자신을 여성적인 존재로 확인하는 안정옥의 「붉은 구두를 신고 어디로 갈까요」(세계사)는 박인숙의 시집과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 「하현달」 「시내림2」 등의 시를 보면 그녀의 시는 여자의 길을 현실의 한 귀퉁이에서 엮어내는데 확실한 시선과 집요한 입담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방향하면서 세상의 한 중심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자의 길이며, 사랑에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여성적 존재의 자기방기의 길이다. 그녀는 그 '길'을 「풍기 가는 길」 「불을 찾아서」 등에서 마침내 하나의 의미있는 예술적 형상으로 키워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풍기 가는 길」에서 여자의 길은 거기서 사과 과수원을 하는 옛 애인을 찾는 그림으로 시작된다. 거기서 낯설은 타자로 남아있는 남자를 찾아 그 고장에 얽혀있는 여러 갈래 길을 같이 헤매면서 그 여자의 길은 성숙된다.

우리는 어깨를 싸잡고  
세상 오래 산 빛자루가 어느 날 날기도 하듯  
그만치 살아내니 그가 남자도 아니고 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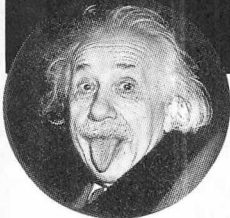
여자가 아닌  
그저 사람인, 같은, 표류하는

자신을 이제는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인식하는 자리가 열리게 된 것이다. 「불을 찾아서」는 그러한 각성의 깊이가 더해지고 바다의 그 깊이 속에서 잠깐이나마 부처의 형상과 마주한다. 그녀의 '길'은 그러한 각성을 통해서 시골의 카페와 같은 곳에서 하나의 풍경이 되어버린 여자들을 본다. 그녀의 길은 떠돌이 유녀의 길과 닮아가면서도 허수경의 그것과 달리 자신의 발걸에 자꾸 눈이 가는 자의식을 많이 담고 있다.

한권의 시집을 내기 위해서 시인들은 수많은 망설임과 두려움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대개는 한권의 분량이 되면 시집을 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다. 이러한 풍조에 반란을 일으키는 시인들이 여전히 숨어 있기는 하다. 이번에 읽은 시집들은 거의 일정한 수준에 올라있는 것들인데, 여기에서 필자가 그러한 '반란'을 운운한다는 것은 조금 우습지 않을까? 나는 시인들의 조그만 이미지라도 독자를 끌어안고 충격을 선사하며,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있으면 일단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 시대는 너무나도 그러한 것들을 더럽히고 가려버리는 악덕들로 가득차 있지 않은가 말이다.

## 아인슈타인의 꿈

EINSTEIN'S DREAMS



“아인슈타인과 함께 떠나는 환상 시간 여행”

신간 소설



.....  
지난 몇 달 동안 그는 시간에 대해 많은 꿈을 꾸었다. 꿈은 그의 연구를 사로 잡아 버렸다. 그러나 꿈은 이제 끝났다. 그럴듯한 시간의 성격은 시간에 대한 꿈을 꿀 때마다 한 가지씩 새로 나타났지만, 그 가운데서 한 가지가 유달리 마음을 끄는 것이다. 그는 꿈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상상한다. 그 세계에서는 시간이 원처럼 흐를 수도 있고, 거꾸로 흐를 수도 있으며 또는 피코리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마침내 드러나는 삶과 우주의 참 모습...

•앨런 라이트먼/권국성 옮김/값 4,800원



진선출판사

전화 720-5990, 5991  
팩시밀리 739-2129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 북 리뷰 베스트셀러